

지치고 스트레스 쌓일 때, 간단하게 한 게임 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인 채 돌아온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춤들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확실히 해소해 주는 온라인게임이 등장했다. T3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해 엠파스게임나라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오디션' 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온게임넷 비비빅을 통해 방송되고 있기도 한 오디션에 대해 살펴봤다. 글_ 신승철 기자

지친 일상 녹여줄 비타민 같은 게임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자신만의 캐릭터를 생성하게 된다. 우선 캐릭터 이름부터 이쁘게 지어보자. 그 뒤에는 캐릭터명을 바꾸지 못하니 신중하게 정한다. 이제 오디션 타운의 주민이 되어 본인의 아바타를 통해 수많은 라이브 댄서들과 신나는 댄스 배틀을 펼치거나, 마음에 맞는 이성친구를 만나 승패에 관계없이 춤과 노래를 통해 가까워져 보자.

오디션 타운에서의 생활

오디션 타운은 크게 5가지 구역으로 형성돼 있다. 직접 댄스 배틀을 펼치며 자신의 경험치와 DEN(게임머니)을 쌓아갈 수 있는 '방송국', 아바타와 더불어 자신의 취향대로 꾸며나가며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마이홈', 오디션 타운의 수많은 댄서들과의 커뮤니티를 위한 '클럽', 자신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들의 랭킹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랭킹' 등이다. 플레이어는 이곳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오디션 타운의 주민으로서의 생활하게 된다.

오픈베타 서비스 중인 오디션의 쇼핑몰은 아직까지는 뮤직물과 패션물만 보이나, 실제로는 다양한 쇼핑몰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아바타 아이템을 사서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고, 댄스 배틀에 사용할 음악과 스테



이지, 그리고 게임 내에 영향을 주는 효과 아이템들을 구입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현재 버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바타 아이템의 수는 387개. 그 퀄리티는 뛰어난 편이다. 아이템의 조합으로 어디선가 본 듯한 캐릭터를 연출해 낼 수도 있다.

게임 내에서 얻게 되는 게임머니만으로도 모든 아바타 아이템 구입이 가능하다. 물론 정말 비싼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만 들인다면 충분히 아바타를 예쁘게 꾸밀 수 있다.

저렴한 아이템들을 이것저것 구입하며 수집의 길을 걷느냐, 게임머니인 DEN을 한번에 모아서 귀한 아이템으로 치장하느냐는 플레이어들의 선택. '그래도 난 저 아이템으로 꾸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유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누구나 쉽게 아바타 아이템을 꾸밀 수 있다고 하니! 물론 선물보내기 기능도 지원한다고 하니 자신의 연인, 혹은 친구의 아바타를 꾸며



최근 유행하는 춤들이 이 게임에 녹아 있다.



뮤직물에서는 유명가수들의 수많은 노래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최대 6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이 곳이 바로 댄서들의 낙원 '오디션 타운'.

게임명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 <http://online.game.empas.com/audition/> 개발사 T3엔터테인먼트 유통사 엠파스게임나라 서비스 권장 사양 펜티엄3 1Ghz/256M

출 수도 있다.

오디션 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국에 입장을 하고 간단한 튜토리얼 모드를 끝내고 나면 플레이어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댄스 배틀을 통해 경험치와 DEN을 모을 수 있다. 한방에는 최대 6명이 입장 가능하며 개인전과 팀전을 선택해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626개의 댄스 모션 지원

음악, 스테이지 등 나머지 게임 모드도 결정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 오디션은 기존 리듬게임들과는 많은 차별화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우선 플레이어는 자신이 추고 싶은 춤을 화면 왼쪽의 스킬노트 박스에서 골라 화살표로 입력, 그리고 4박자의 리듬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춤들을 출 수 있다. 게임은 순위를 실시간으로 겨루는 레이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일 선두의 캐릭터는 나머지 플레이어들을 뒤에 두게 된다. 백댄서를 둔 메인댄서의 느낌이랄까!

여기서 잠깐! 댄스 스킬노트란, 춤을 발동시키기 위해 준비돼 있는 화살표들의 집합으로서 그 집합 하나 하나가 댄스 모션으로 지정돼 있다.

이렇게 설정돼 있는 댄스 스킬노트가 무려

626개다. 626개의 댄스 모션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 아닐 수 없다. 유명 가수의 안무부터 해서 박력 있는 브레이크 댄스까지. 더군다나 업데이트 때마다 수십개의 댄스 스킬노트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 댄스 보기만 추가된다면 궁극의 댄스 교재 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모든 플레이어와 대결을 펼치는 개인전과 두 팀으로 나뉘져 대결을 펼치는 팀전으로 나뉘져 있다. 그 중 주목할 것은 이번 업데이트에 추가된 새로운 개인전 모드인 프리스타일 배틀 모드. 수백여종의 댄스 스킬노트들을 통해 자신이 춤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모드다. 게임 내내 보여지는 화려한 춤들은 구경만 하더라도 즐거운 기분이 든다. 그래서 제작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관전 기능 과 녹화 기능



어제의 당신은 몸치. 그러나 오늘의 당신은 화려한 댄서다.



드디어 '퍼펙트' 개네



리듬에 몸을 맞춰 다 함께 춤을 추자!



우선은 초보서버에서 게임에 익숙해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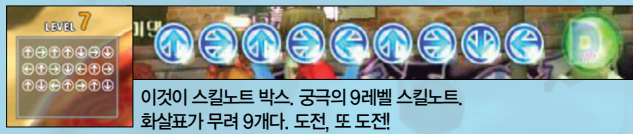
게임룸에서 대화란 하는 신인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옆차기 댄스다.



앗! 실마 Boa?



이것이 스킬노트 박스 궁극의 9레벨 스킬노트. 화살표가 무려 9개다. 도전, 또 도전!



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곧 팀원들이 춤을 똑같이 맞춰 출 수 있는 안무 배틀 모드를 포함해 다양한 게임 방식을 제작 중이라고 하니, 오디션이 가진 댄스 게임으로서의 가능성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물론 다양한 퀘스트와 미션, 그리고 댄스 매니아들과 컬렉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3D 댄스 카드를 게임 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법하다.

매력적인 배경 음악과 아바타

오디션의 게임 내 배경 음악은 다른 리듬 게임과 확실히 차별화를 두고 있다. 바로 풀 음원을 사용해서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를 그냥 통채로, 있는 그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븐, 휘성, 렉시, 샤크라, DJ DOC 등을 포함한 수많은 가수들의 노래가 그대로 배경음악으로 나와 플레이어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게임 내 곡수는 1월 24일 기준으로 128곡. 더군다나 유료화가 된 뒤에는 최신 노래들 위주로 노래를 선별해 넣는다고 하니 말 그대로 춤과 노래의 환상적인 향연이다.

또한 오디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력적인 아바타다. 춤과 노래가 있는 댄스 게임

이다 보니 여성 유저가 굉장히 많은 것이 타 게임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게다가 캐릭터가 귀엽다 보니 여성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렬해 여기 저기서 이성 교제를 지향하는 유저들이 참으로 많았다. 거기 당신! 솔로라면 당장 오디션에 접속해 보자.

서버는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자유서버 ▲초보 유저들이 실력을 키우는 초보서버 ▲높은 레벨의 댄스를 구사하는 유저들의 고수서버 등이 있으며, 인기도에 따라 ▲댄스킹/댄스퀸 ▲춤짱 ▲프로댄서 ▲아마댄서 ▲거리댄서 ▲초보댄서 ▲몸치 ▲구체불능 등의 계급이 매겨진다.

오디션은 기존 3D 온라인 대전 게임의 형식을 깨고 스트레스 없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임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을 생소해 하는 유저들을 위해 알기 쉽고 간단한 튜토리얼과 초보서버가 준비돼 있으며, 춤과 음악 자체만을 즐기고 싶어하는 유저를 배려한 관전 모드, 고수들의 플레이를 공유해서 볼 수 있는 녹화 기능,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클럽, 마이홈)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유 있게 실력을 갈고 닦으며 자유서버를 목표로 해보자. ●

